

‘어머니’ 이름으로 바다에 기대다

<3부>잠녀를 만나다-110. 울릉도·독도의 제주잠녀들 5

등록 : 2009년 08월 04일 (화) 15:11:27
최종수정 : 2009년 08월 04일 (화) 15:11:27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힘들었던 기억 뿐·구경거리 취급 싶어 결혼과 함께 물질 접기도

아직도 멀리 수평선 보며 하루 예감…마음만은 언제나 바다에

‘독도’하면 갈매기 울음소리 밖에 기억이 나질 않는다.

“돈을 벌면 고향 간다”며 버티기에 독도와 울릉도에서의 물질은 녹록치 않았다.

9남매 중 다섯 번째로 일찍부터 바다를 알았던 제주 비바리는 스물다섯 젊은 나이에 울릉도에 발을 뒀었다.

‘다시는 얼굴도 안보겠다’는 부모의 반대 끝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결혼 후 다시는 물에 들지 않았다.

서글픈 맘에 흘린 눈물 바다 되어



모처럼의 고향 손님들이 반가우면서도 한영숙 할머니(62)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결혼과 함께 물질을 그만 뒀던 것도 비슷한 이유였다.

한 할머니는 “제주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물질하는 것을 좋지 않게 봤다”며 “그나마 제주에서는 바다에 들지 않고는 먹고 살기 어려워 누구나 물질을 했지” 하고 씩씩한 표정을 지었다.

1970년 결혼을 하면서 조그만 민박을 운영하는 한 할머니가 바다를 찾는 것은 간혹 미역을 거둬 올 때 뿐 어렵게 바다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있었다.

미역 작업을 마치면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처음 울릉도행을 택했을 때만 해도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 바다를 구경이나 해보자는 심산이 컸다.

미역도 미역이었지만 발에 채일 정도로 지천인 전복이며 모든 것이 신기하기 만 했다.

미역 반구(바다)에 들어서면 잠시 쉴 틈도 없이 미역을 거뒀다. 제주에서는 미역허채가 이뤄지는 날에나 볼 수 있는 풍경이 계속 이어진다. 다른 점이라곤 마중을 나오는 남편 등 가족 대신 잡녀들이 서로 일을 분담해 햇볕에 말리는 작업을 하는 것 뿐이었다.

그렇게 일행들과 어울려 독도 물질까지 했다. 물골에서의 생활은 말 그대로 비참했다. 먹을 물도 마땅치 않아 비가 오면 간신히 솥 빨래를 했다. 감치가 많이 올라와 '가제바위'라 불렀던 넓적한 바위 인근에서 주로 작업을 했다. 갈매기 알을 주으러 갔다가 벼랑에서 죽을 뻔 한 적도 있었다.

한 할머니는 "서글픈 심정에 많이도 울었다"고 털어놨다. "주변을 둘러봐도 갈매기 울음소리 밖에 안 들렸다"며 시선이 흔들린다. 그렇게 한참 말이 없었다.

깊이 모를 정도로 맑은 바다, 고향 닳아



“고무뚫도 이 곳에서 입었지”

한 할머니는 그렇게 조금씩 고향 바다와 멀어지고 있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 한창 물질을 할 때는 물소중기(소중의·속곳)와 물적삼을 입었다. 그 모습이 낯선 탓에 종종 지역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곤 했다.

한 할머니는 “당시에는 물질을 한다는 게 수치스럽게 느껴질 정도였다”며 “이 곳 사람을 만나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한 뒤 가장 먼저 한 것이 물질을 그만 둔 일”이라고 말했다.

그랬다고 바다를 떠날 수는 없었다. 울릉도에서 딸 다섯을 키우는 동안 한 할머니를 지탱한 것은 다름 아닌 바다였다.

그랬다고 바다를 떠날 수는 없었다. 울릉도에서 딸 다섯을 키우는 동안 한 할머니를 지탱한 것은 다름 아닌 바다였다.

바닷가 민박집을 운영하며 틈틈이 바다에 나갔다. 이력이 날만도 한데 아침 눈을 뜨면 바다를 보고, 저녁 바다를 살피고서야 잠자리에 든다. 멀리 바다가 걸으면 '작업하기 좋겠다' 혼잣말을 하고 하얗게 이는 지평선을 보고는 힘든 하루를 예감하고 혀를 찬다.

“더는 기억할 것도 없어. 힘들었다는 것 말고는...” 힘겹게 잠녀에 대한 기억을 더듬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됐다.

“외부 제주 잠녀 자료 생각보다 오래되고 틀린 것 많아”

이수정 미국 스탠포드대 인류학과 연구원

“생각보다 잠녀들의 나이도 많고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도 계속 물질을 하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



이수정 미국 스탠포드대 인류학과 연구원

제주 잠녀를 찾아 꼬박 이틀이 넘는 거리를 달려왔다. 인류학 전공을 선택한 뒤 우연히 제주 잠녀를 알게 됐고, 조금이라도 가까이 알고 싶은 마음이 전부였다.

미국 스탠포드대 인류학과 이수정 연구원(22)은 그렇게 지난 7월 8일부터 제주 잠녀와 만나고 있다. 숫기 없어 보이던 얼굴은 이제 구릿빛으로 잠녀들과 닮아간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자란 탓에 아직 한국어가 서툰 이 연구원에게 잠녀를 만나는 일은 쉽지만은 않다.

간신히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한국어 실력에 제주말은 처음 듣는 외국어처럼 낯설기만 하다. 그래서 더 아쉬운 마음이 앞선다.

이 연구원은 “잠녀 할머니들이 진짜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을 인터뷰하고 싶은데 질문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 잠녀를 알게 된 과정부터 한편의 드라마 같다.

환경과학 분야를 2년 정도 공부하다 인류학으로 전공을 바꾼 뒤 어머니로부터 제주 잠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시작이다. 서울 출신의 어머니 역시 한 언론매체를 통해 ‘잠녀’를 알게 된 것이 전부였다.

스탠포드대 내에 한국과 관련한 인류학 연구를 하는 사람이 없어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간신히 찾은 자료라고 해도 최근 자료는 하나도 없는데다 신문자료 등을 복사한 것이 많았고 그나마 틀린 것도 적잖았다.

실제 대학에서 과제로 잠녀에 대한 논문을 썼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았다.

이 연구원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현장에 와서 보니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며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작업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달 가까이 제주 잠녀와 만나며 많은 것을 얻었다. 구전되는 이야기며 잠녀노래, 잠수굿 등 ‘더 알고 싶은 것’투성이다.

이달 중순 귀국 예정인 이 연구원은 “미국에 돌아가면 연구지원금을 신청해 다시 제주에 오고 싶다”며 “나이가 많은 데도 물에 들어가도 또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